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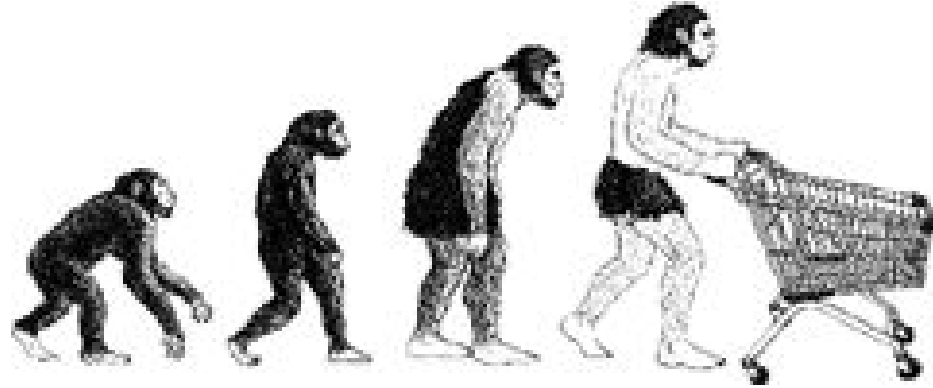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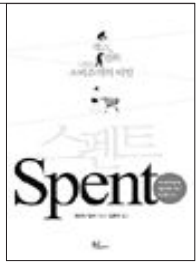
Books

귀금속 치장하는 인간 소비 본능은 '짜짓기'에서 유리해지고 싶어서다

스펜트

제프리 밀러 지음

세상에서 가장 폭넓은 영향력 있는 인간은 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명품을 사고, 연비도 낮은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하고 싶어 안달을 내는 걸까.



저자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형질을 마음껏 과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한다.

인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소비주의의 눈에서 빠져나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돈으로 치장하면 남들이 빛나는 눈으로 쳐다볼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친구와 짜짓기 상대를 고를 때 그들은 금불이를 무시한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질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을 자유가 필요하다."

(469쪽 '결론-자신에게 금칠을 하는 유전자' 중) 짜짓기 상대를 고르더라도 소비로 치장하기보다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소비주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마케터들은 소비자 선호를 이용해 돈을 더 많이 버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마케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돈을 아끼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의 방대한 학술적 연구들을 바

탕으로 한 책이라 지루하고 까다로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풍부한 사례와 재미난 비유들로 이를 극복했다.

책은 경제 이론서이면서 마케팅 실용서, 대중교양서로도 읽힌다.

인간 행동의 개인차를 결정짓는 6가지 요인(지능·개방성·성실성·외향성·친화성·정서안정성)에 대한 설명은 마케터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구입한 것 10가지, 구매한 것들 중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 것 10가지를 적고 얼마나 겹치는지 세어보라는 등 '소비주의의 탈출 훈련 가이드'는 이른바 '지름신(神)' 중독자들에게 유용한 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 시장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가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동녘사이언스·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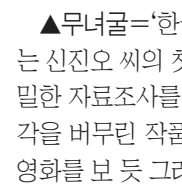
새책



▲**포레아 러시**=구한말 이 땅을 방문한 서양인들을 추적했다. 격동의 한국 근대사와 함께했던 그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한 책이다. 한국의 자연과 사람을 사랑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제중원 설립자 알렌,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에비슨 등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렸다. 타인의 눈으로 본 한국사다.
<효형출판·1만3000원>



▲**독고준**=기자 출신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고종석의 신작 소설. 1993년 '기자들' 이후 17년 만에 펴내는 장편으로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 '서유기'의 주인공 독고준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 쓴 작품이다. 작가는 장년이 된 독고준과 그의 딸 독고원의 삶에 이 시대를 투영했다.
<새움·1만3800원>



▲**무녀굴**=한국 공포 문학 단편선'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신진오 씨의 첫 장편 공포소설. 제주 '김녕사굴'에 얽힌 전설을 치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현실감 있게 재해석해 내면서 현대적 공포 감각을 버무린 작품이다. 토속신앙과 호러스릴러를 결합시켜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그려냈다.
<황금가지·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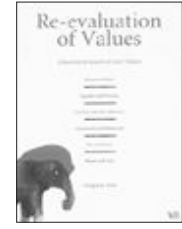
▲**우리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녀와 동행하며 고행사 신부이자 통역을 맡았던 레오 마스부르크가 저술한 전기다. 21세기에도 변함 없이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마더 데레사에 대한 놀랍고 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계 곳곳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영감을 선물해준 그녀의 활동과 인격, 특유의 카리스마와 매혹을 읽을 수 있다.
<민음인·1만2000원>



▲**엑스페리먼트**=독일작가 마리오 지오다노가 1971년 스탠포드에서 이뤄졌다는 심리학 실험을 소재로 한 스릴러다. 참가자 전원에게 하루 200유로가 지급되는 '교도소 실험', 참가자들이 점점 가상의 역할에 몰입하고 등장인물들을 둘러싼 1년 전 살인사건이 맞물리면서 실험은 미궁으로 빠져든다.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의 원작 소설이다.
<이레·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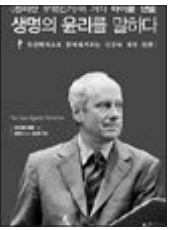
▲**가시울타리의 증언**=30년간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도관이 쓴 감옥 이야기. 격동의 80년대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김근태, 이근안, 전경환 등 다양한 비화들을 소개한다. 특히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영등포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이부영씨가 6월 항쟁을 촉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함세운 신부에게 관련 문서를 전달했던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멘토프레스·1만2000원>



▲**Re-evaluation of Values**=부산의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인 인디고 서원이 발간한 영문 인문학 서적. 인디고 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연구·실천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묶은 책으로 외국인들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영문으로 엮은 것이라고 한다.
<공리·1만8000원>

'정의란...' 샌델 교수 이번엔 윤리를 묻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외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가 번역·출간됐다.



청각장애 레즈비언 커플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은 유전자 선택 등 유전공학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내간다.

유전공학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를 살펴본 저자는 스포츠 선수와 유전공학, 우생학, 배아 줄기 세포를 둘러싼 논쟁 등으로 논의를 이끌어간다.

2007년 원제 'The Case against Perfection'로 발간된 것으로 저자가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생명윤리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과 하버드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녘·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간은 이 세상의...' 외 2권

헤르타 뮐러 지음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헤르타 뮐러(57)의 장편 소설 세 권이 동시에 나왔다. 지난 4월 출간된 데뷔작 '저지대'와 최근작 '숨그네'를 잇는 것으로 하나같이 심상치 않은 제목이 붙었다.



루마니아의 독일계 소수민족 출신으로 차우세스쿠 독재 권력의 폭압적인 통치 속에서 성장기와 청춘기를 보내다 루마니아 비밀경찰의 감시와 압박을 피해 1987년 독일로 망명한 헤르타 뮐러는 세 권의 소설에서 독재 권력 하의 숨막히고 끔찍한 삶을 특유의 압축적인 시적 언어로 때로는 음울하게 때로는

황홀하게 그려냈다.

망명 직전 1986년 펴낸 '인간은 이 세상의 거대한 평이다'는 독재 정권의 공포에 시달리며 서구 세계로의 이주를 기다리던 독일 소수민족의 내면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탐욕과 뇌물,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곳에서 '빈디시'의 가족은 출국허가증을 손에 넣기 위해 뇌물을 바치고 외동딸의 몸까지 경찰과 신부에게 내놓는다. 제목 '인간은 이 세상의 평이다'는 루마니아의 속담으로, 어설픔고 무력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한다.

'그때 이미 여우는 사냥꾼이었다'는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공포와 압박이 횡행하는 암울한 상황을 다뤘다. 루마니아 비밀경찰로부터 스카이를 역할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자 감시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던 뮐러의 실제 경험을

독재 정권 아래 숨막히고 끔찍한 삶 다뤄

반영한 작품이다. 이 책의 제목 역시 루마니아 속담에서 따온 것으로 희생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 독재정권이 붕괴됐어도 독재자의 추종 세력과 그 시스템에 익숙해진 탓에 근본적인 정치·사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집승'은 독재 시절 루마니아를 돌아보는 그녀의 청춘일기와도 같은 작품으로 차우세스쿠 치하에서 세상을 떠난 두 친구를 위해 쓴 소설로 알려졌다. 한 친구는 목을 뺐고, 또 한 친구는 창문에서 몸을 던졌다고 가족에게 통보됐지만 타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검은 허용되지 않았다. '마음집승'은 작가가 만들어낸 단어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아의 그림자를 의미한다.

<문학동네·9500~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0 Gwangju YENICE GLASS FANTASIA

8월22일(일) 까지만 전시합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부시장로1길 10)

문의: 061-271-2222

2010 Gwangju YENICE GLASS FANTASIA

8월22일(일) 까지만 전시합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부시장로1길 10)

문의: 061-271-2222